

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년 제4차 연구기획분과 회의록(6월)

일시	2020. 6. 18.(목) 10:00~11:30	기록	임복희	확인	남상은, 유철호	
장소	화상회의					
참석자	총 16명 중 12명 참석 75% - 관 1/2, 민 11/14 (민소영교수님 참석)					
	분과장 남상은	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	교육 위원 소현이	우만종합사회복지관	부장 ○	
	분과장 유철호	능실종합사회복지관	부장 ○	위원 신빛나	광고종합사회복지관	부장 ○
	총무 김지은	법률노인복지관	부장 ○	위원 오윤진	예산재정과	부팀장 ×
	위원 김명진	광고노인복지관	부장 ○	위원 이은혜	수원시자원봉사센터	팀장 ○
	위원 김분홍	팔달노인복지관	부장 ×	위원 조혜진	복지협력과	주무관 ○
	위원 김은신	연무사회복지관	부장 ×	위원 최정화	호매실장애인복지관	사무국장 ○
	위원 김재성	영통종합사회복지관	부장 ○	위원 한연주	수원시정연구원	연구위원 ○
	위원 김현민	서호노인복지관	부장 ×	위원 황자춘	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	팀장 ○
	위원 문봉군	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	팀장 ○	자문 민소영	경희대학교 사회복지학과	교수(배석) ○
자문 김윤희	수원체육문화센터	관장(배석) ×	담당 임복희	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	팀장 ○	
회의주제 및 안건	1. 공유사항					
	1) 연구기획분과, 전달체계분과 인사					
	2. 교육 및 질의					
	1) 커뮤니티케어와 전달체계 변화 시도(경기대 민소영 교수) 2) 질의 논의 - 사례를 듣고 현재 시점에서 수원시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은?					
3. 안건논의						
1)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달체계 성과지표 검토						
4. 차기회의 일정						
회의결과	1. 공유사항					
	1) 연구기획분과, 전달체계분과 인사					
	2. 교육 및 질의					
	1) 커뮤니티케어와 전달체계 변화 시도(경기대 민소영 교수) * pdf 교육 자료 파일 참고					
○ 발표 초점						
- 지역사회보호와 확대 이유						
-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례						
-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사례						
-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쟁점						
○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배경			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과 병원 거주외 과도함 - 서비스 간 연계부족으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통합성 결여 (예: 방문보건-의료급여-통합사례관리 등) - 획일적 전달체계의 경직성 (예: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- 같은 사람이고 같은 욕구인데 나 이 때문에 서비스가 제한됨.) - 장애인 탈시설, '지역에서 살아야 한다'라는 인식 - 서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예산절감의 방안으로 크게 고려되었음. <p>○ 지역사회통합돌봄 논의에서 유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복지 범위를 넘어선 논의: 보건 영역의 부각 - 보편적 서비스의 확충에 초점 - 돌봄이라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음. - 서비스 제공과 관리의 단위가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역할 추진 계획 - 사회복지와 보건 영역의 공공인력 확충과 연계 - 지역사회와 주거에 대한 강조(예: 케어안심주택) <p>○ 주요 국가의 재가서비스 내용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더 필요한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알람, 식사배달, 노인보건시설, 치매노인그룹홈, 주택개보수, 야간순회 수시 대응형 방문개호,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<p>○ 전략과제 제시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년까지 OECD 수준의 장기요양수급자 확대 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-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1:1 전담 의료서비스 제공 - 지역사회중심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(어려운 점)왕진 단가가 없고, 약을 타려면 병원에 가야하는 문제 - 맞춤형 주거지원 및 돌봄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- 퇴원서비스로 끊김 없는 재가서비스 연계 - 병원의 서비스 전문화 및 합리적 이용 유도 - 사는 곳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는 케어통합창구 신설 (시범사업 16곳 모두 케어통합창구를 만들어냄.) -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연계체계 구축 - 케어종사자 양성 및 기술적 기반 마련 <p>○ 커뮤니티케어 서울시 돌봄 SOS센터 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으로 방문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욕구 - 서울시는 성인돌봄 관련해서 돌봄 SOS센터를 설치함으로써, 근거리에서 필요한
--	---

	<p>돌봄서비스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 돌봄 SOS센터란? 등에 있는 센터임. 보통 등에 3개의 팀이 있는데 서울시는 SOS팀을 하나 더 만들고 팀장이 겸직하고 있음.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,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받은 홀몸어르신, 장애인, 노인부부로 배우자가 치매를 앓는 경우 등임. 기능은 돌봄서비스 상담 및 정보제공,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의뢰,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임. <p>○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천시에는 36개 일반동을 10개 동(광역동)으로 통합함. - 시범사업으로 6개 광역동에서 실시하고 있고, 이번년도에 더 확대할 예정임. -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반방화 - 지역사회 기반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- 동별 다양한 복지보건 민관 자원 연계 <p>○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특징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케어회의 운영 -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-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무 T/F -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-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실천단(지역리더) 운영: 의사와 지역리더가 함께 방문, 의사가 설명하고 지역리더는 잘 듣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해줌. -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<p>○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쟁점과 과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절대부족인 서비스 보강 - 파편화된 돌봄서비스를 연계, 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 구성(지방정부의 역할 강화) - 보건-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-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역할 및 방향 <p>2) 참여자 질의응답 및 의견 나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기획분과 유철호 분과장: 부천형의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 설명해주셨는데 부천에서는 연구 결과를 받고 이후에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궁금함. - 민소영 교수: 보건과 복지의 연관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지역사회통합돌봄 팀에도 간호직을 배정하겠다고 들었음. 주거관련해서는 케어안심주택을 2~3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장기입원자들이 이용할 수 있음. 그 이외에는 2번째 연구가 진행되어 봐야지 알 수 있음. - 연구기획분과 소현이 위원: 사례를 듣고 수원시 방안 고민해봄. 부천시 사례에서
--	---

10개 광역동과 종합사회복지관이 1대 1 매칭 되었다고 하셨는데, 예산이 지원된 가운데에서 연계가 되었던 건지 궁금함.

- 민소영 교수: 주로 영양, 세탁, 이동, 일상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자원을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가?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?를 생각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한계가 있었음.
- 연구기획분과 소현이 위원: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데, 따라서 노인 장애인 분들이 많음. 일상적인지원 차원에서 많은 욕구가 나오는데 모두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음.
- 민소영 교수: 종합복지관의 기본사업이랑 돌봄욕구가 있는 당사자에게 주는 기본서비스는 안 맞는다고 생각함.
- 연구기획분과 소현이 위원: 기본서비스 욕구가 많이 있는데, 종합복지관 차원에서선 자원의 한계가 느껴짐.
- 민소영 교수: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보고 서비스를 구축하라고 했을 때,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지?
- 연구기획분과 소현이 위원: 지금 인력구조로는 불가능하고, 사회적지원조직 등 지역을 활용해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.
- 민소영 교수: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들이 주어질 수 있는가? 그렇지 않으면 왜 자꾸 종합사회복지관을 왜 자꾸 연결하려 하는가? 통합돌봄을 하는데 왜 종합사회복지관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했을까? 라는 질문이 있음.
- 연구기획분과 유철호 분과장: 영구임대단지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은데, 맞춤형 돌봄 사업을 기관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동이나 일상지원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함. 이와 함께 사회적지원조직이 매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? 라는 생각임.
- 전달체계분과 최옥순 자문위원: 사회적경제조직이 이 분야 들을 가지고 있음. 수원시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16일부터 하고 있음. 사각지대(등급이 없지만 중증이고, 자녀가 있지만 돌봄 못받는 경우) 20case 반찬, 세탁, 청소, 방역 등 사업진행 예정임. 특히 의료사업에서 방문으로 진료할 수 있고, 심리상담도 당사자가 내방할 수 없으면 방문해서 진행도 하고 있음.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원만으로는 부족해 협력이 필요함. 수원형돌봄서비스 구축을 여러 기관이 함께했으면 함.

3. 안건논의

- 1)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달체계 성과지표 검토
 - 7월에 각각의 분과 회의가 진행될 때 재논의 하기로 함.
 - 누구나 쉽게 찾는 수원형 통합 복지체계 구축 성과지표인 맞춤형 서비스 상담 실적,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실적 목표에 대한 의견 공유 필요함.

4. 차기회의 일정

※ 정기회의 : 매월 셋째주 목요일 10:00

- 일시 : 7/16(목) 10:00

- 장소 : 화상회의

- 내용 : 2020년 시행계획 변경 및 중간 모니터링
커뮤니티케어 관련 논의, 향후 사업 추진 방법 논의 등

사진

